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e and Arts in Pohang*

Sejoeng Lim**, Soelah Kim***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losely examines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e and the arts in Pohang,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key conditions required for the city to reach a more sustainable and successful stage of regeneration. To this end, the paper first draws on successful cases of European cultural cities, extracting their major success factors and comparatively applying them to Pohang's urban regeneration process in order to evaluate its urban policy. At the same time, the study situates Pohang within the context of Korea's state-led, compressed economic growth, recognizing it as an industrial city shaped by distinctiv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t analytically assesses how such a city, while broadly following the trajectories of urban regeneration observed in European industrial cities, has also developed its own distinctive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s. In practice, Pohang has pursued new pathways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by developing regional cultural content and fostering cultural industries based on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the arts. By examining the case of Pohang, this study offers implications for the many Korean industrial cities that are likely to face the ongoing issue of regional decline, suggesting possible directions and key points of discussion for cities seeking their own models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e and the arts.

Keywords

Arts and Culture, Urban Regeneration, Declining Industrial City,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ohang, Liverpool, Lill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5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 First Author, email: bidet0712@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elah@hongik.ac.kr

포항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연구*

임세정**, 김설아***

홍익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포항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과정을 면밀히 살펴면서, 이 도시가 도시재생에 있어 확실한 성공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떤 면들이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적으로 유럽문화도시의 성공 사례들을 끌고 와 그 성공요인들을 포항의 도시재생 과정에 대입하며 포항의 도시정책을 비교적으로 평가한다. 그다음, 포항이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정책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산업도시임을 인지하며, 이러한 한국 고유의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산업도시가, 유럽 산업도시의 도시재생 과정을 개괄적으로 따라가는 와중에도, 자신만의 특징적인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독창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분석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포항은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적 성격에 기반한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문화적 도시재생에 있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다. 산업도시 포항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본 연구는 '지방소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앞으로 계속 이슈화될 한국의 수많은 산업도시들이 그들만의 도시재생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 발전방향과 주요 논의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문화예술, 도시재생, 쇠퇴한 산업도시, 유럽문화수도, 포항, 리버풀, 릴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저자,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bidet0712@gmail.com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화예술경영대학원 부교수. soelah@hongik.ac.kr

I. 서론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 유럽 전역에 급속한 산업화 현상을 가져왔다. 유럽의 국가들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갔고 많은 도시들은 산업 발전의 중심지가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및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경제를 살려 나가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정책을 취했으나, 1970년대 국제적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를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시킨다. 탈규제와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제조업이 아시아권으로 옮겨 가면서 유럽 산업도시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심각한 고용 감소, 실업률 상승,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서준교, 2014). 이후 유럽 도시들은 자신들의 산업 중심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책을 찾게 된다. 이들은 1990년대 들어 대규모 문화시설을 만들거나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을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 이용하게 된다.

1985년, 유럽연합(EU)은 유럽 국가 간의 문화적 화합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도시 한 곳을 ‘문화수도’로 선정하고 이에 많은 이웃 국가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라 불리는 본 프로젝트는 2026년 현재까지 지속되는 유럽문화정책으로, 이는 1999년 영국 글래스고(Glasgow) 유럽문화수도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이 도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쇠퇴한 산업도시였던 글래스고는 이미 행사를 치렀던 다른 도시들처럼 자신들의 역사적 유산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진행시키고 동시에 도시 내 문화 공간의 구축 또한 행하며 도시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어낸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문화예술 주도 도시재생 전략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글래스고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도시재생 전략을 발전시킨 프랑스의 릴(Lille)과 영국의 리버풀(Liverpool)은 각각 2004년과 2008년에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며 지역의 문화예술적 수준 고취와 경제적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글래스고와 더불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성공의 대표적 사례가 된 것이다.

유럽문화수도의 영향은 유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논의가 형성된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2008)는 이미 대선공약에서부터

유럽의 문화적 도시재생 모델을 수용하면서 광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 ‘지역거점문화도시사업’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본격화되었다(박광무, 2013).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기초와 방향성을 이어간 이명박 정부(2008-2013)에서는 ‘지역거점문화도시사업’이 지방자치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 소통에 불협화음 생기면서 문화도시 정책 운영체계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게 된다(서우석 외, 2019). 이에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는 문화도시 정책의 새로운 운영체계와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2013년부터 기존 문화도시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한,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초점을 맞춘 ‘문화특화 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문화마을사업)¹⁾’을 추진한다. 2014년에는 ‘지역의 고유문화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지역문화진흥법」²⁾을 제정한다. 문재인 정부(2017-2022)는 바로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2019년 법정문화도시들이 선정, 지정되도록 한다. 이후 이들 문화도시들은 5년간 국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시민참여 중심의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적 도시재생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으며 재생사업을 진행시켰다. 이후 윤석열 정부(2022-2025)는 법정문화도시사업을 중단, 이를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으로 대체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경제살리기’라는 국정 목표 아래,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특히 민관 합작투자를 통한 자원 조성을 문화도시 선정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화도시 운영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조했다(김설아, 2024)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유럽문화수도’라는 문화정책을 통해 많은 도시재생의 사례들을 배출해 왔다. 축적된 노하우가 성공이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반면 한국의 문화도시정책은 근래인 2018~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온

1)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와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 생태계의 형성을 지향하는 질적 발전에 초점을 둔 ‘문화마을형’과 도시 차원의 문화정책과 사업, 문화시설 확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양적 발전에 초점을 둔 ‘문화도시형’으로 구분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2)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역문화진흥법>).

3) 현재 1, 2차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종료되었고 3, 4차에 해당하는 12개의 법정문화도시와 2024년에 선정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로, 사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두고 확실한 성공의 사례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포항이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의 재생을 이루어 온 과정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포항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자생력을 키우면서 침체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지역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일찍부터 국가공모사업에 지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및 법정문화도시에 각각 2016년, 2019년에 선정되었다. 이후 시민을 참여시킨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며 법정문화도시 성과 평가에서 2020년 최우수, 2021~2023년 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많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24년, 5년이라는 기간에 한정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현재 포항은 국비 지원 중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포항의 문화적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포항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노력을 면밀히 살펴면서, 이 도시가 도시재생에 있어 확실한 성공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떤 면들이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앞서 언급한 유럽문화도시의 성공 사례들을 끌고 와 그 성공 요인들을 포항의 도시재생 과정에 대입하며 포항의 도시정책을 비교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그다음, 포항이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정책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산업 도시임을 인지 하며, 이러한 한국 고유의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산업도시가, 유럽 산업도시의 도시재생 과정을 개괄적으로 따라가는 와중에도, 자신만의 특징적인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독창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분석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유럽의 산업도시와 완전히 다른 역사적 성장 배경을 지닌 한국 산업도시들이 고유의 문화적 도시재생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산업도시 포항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본 연구는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안에서 앞으로 계속 이슈화 될 한국의 수많은 산업도시들이 그들만의 도시재생 방법을 찾아나가려 할 때, 그 발전방향과 주요 논의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성을 지닌 한국의 도시재생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II. '포항'이라는 도시

1. 포항의 성장과 쇠퇴

포항은 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산업도시이자 항구도시이다. 조선시대 말까지 소규모 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1905년 일제의 통감부 통치가 시작된 이후 자국민에 대한 단체 이주가 장려되면서 많은 일본어민들이 유입되었다. 일본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택지 조성, 상·하수도 건설 등 공공시설이 정비되면서 포항은 점차 도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포항시사편찬위원회, 2010). 1910년대, 포항과 타 도시를 잇는 도로들이 개통되고 동해중부선 철도가 준공되면서 포항의 지역적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1923년에는 포항항이 완공되면서 큰 배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는 포항과 경북 내륙 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을 촉진시켰다. 또한 일본인의 이주와 조선인 농촌인구의 유입을 통해 포항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포항은 일제강점기 동안 경북의 주요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최성원, 2013).

1949년, 포항이 포항시로 승격되면서 포항항의 국제항 추진이 진행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62년에 국제개항장으로 지정된다(배용일, 1997). 이처럼 20세기 초반부터 차근차근 항만 시설 및 철도, 도로망, 산업용수 공급망 등의 복합적인 산업 기반을 갖추어 온 포항은 1967년 제철산업단지 건설 도시로 채택된다(장세훈, 2011). 그리고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가 창립된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국가 주도 산업화 전략 속에서 포항이 제철 산업 거점 도시로 급성장하게 된 것이다. 포항제철은 1970년 포항1기 공사를 시작으로 11년에 걸친 4단계 확장 공사를 통해 1980년대 들어서는 연간 85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포항제철은 대한민국 경제 고도성장의 상징이자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송성수, 2000)⁴⁾.

포항제철의 성장은 곧 포항의 도시성장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 말까지 8만 명에 못 미치던 포항의 인구는 철강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1970년대 초반 10만 명을 넘어섰고, 1980년에는 철강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따라 2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동일 시기 포항시의 재정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1980년대 후반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87.4%에까지 이르게 된다⁵⁾.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산업 발전에 따른 세입의 증가는 도시의

4) 포항제철은 1982년에 세계 11위 철강 업체로까지 성장한다(송성수, 2000).

물리적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 포항은 간척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육지의 면적을 늘리며 신흥주택단지 건설과 상가부지 조성, 도로망 확충 등을 진행 시킨다⁶⁾.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국면에 접어들며 철강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민영화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국내 철강업체들과의 본격적인 경쟁 돌입(2002), 인수합병을 통한 세계 철강업계의 경쟁력 회복 등으로 인해 포항제철은 위기적 측면에 다가서게 된다(장세훈, 2019). 이후 철강제품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가격경쟁,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제철소 설비 노후화 문제 등이 축적되면서 2024년 포항제철의 공장들이 폐쇄하게 된다(손유진, 2025). 그리고 이렇게 20년간 이어져 온 철강산업 환경의 변화는 포항의 고용 규모 축소와 인구 감소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포항의 인구는 오랫동안 50만 명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5년 말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또한 이들 유출 인구의 90%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2023년부터 포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김재원, 2026).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문화예술을 통한 포항의 도시재생 과정

1) 2016년의 ‘꿈틀로’ 사업

포항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이다. 그전까지 포항은 포항국제불빛축제, 스틸아트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축제를 개최하거나, 포항 시립중앙아트홀, 중앙아트센터공연장 등의 공연 공간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늘리고 제공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2007년 포항시가 추진한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또한 조형적 건축물을 건립하고 수변공간을 재정비하는 등, 도시경관을 미적으로 비꿈으로써 시민에게 편하고도 아름다운 문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었다.

2016년 이후 포항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킨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인 ‘꿈틀로’ 예술창작

5) 산업성장의 영향으로 1970~1988년 사이 포항의 재정규모는 9,848% 증가하여, 같은 기간 국가재정 증가율(4,358%)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였다(박병식 외, 1991).

6) 1995년, 포항시가 영일군을 흡수 통합하면서 포항시의 인구는 약 51만 명으로 증가한다.

지구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꿈틀로’는 포항시의 옛 중심지인 중앙로 298번지의 낙후된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기획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다. 중앙로 일대는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자리한 곳으로, 과거에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4만 5천 명에 달했던 대표적인 상업지구였다(김상화, 2010). 그러나 2006년 말 포항시청의 이전, 자영업의 불황, 도심 정비계획 등의 영향으로 중앙로 일대의 유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이에 따른 매출감소와 상가 공실을 상승으로 인해 구도심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손석호 외, 2019). 2016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문화도시형’사업에 선정된 포항은 중앙로 298번길 일대를 문화 예술지구로 지정, 20여 개의 빈 점포에 예술가들을 입주시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만든다(김주일 외, 2021). ‘꿈틀로’라 불리는 이 지구는 시민과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문화적 거점이 되면서 교류와 만남을 통한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을 실천하게 된다.

<표 1>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사업 주요내용
문화적 공간	문화경작소 ‘청포도다방’	1960년대 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살롱 공간이었던 음악감상실을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조성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 이자 카페 공간
	스페이스 298	2021년 포항문화재단의 문화도시 기획 일환으로 조성된 예술 문화 복합 공간으로, 지역 기반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시 공간
	문화공판장	옛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던 자리로, 현재는 공연, 공공 조형물 전시, 커뮤니티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
시민 참여 촉제	298놀장	2019년부터 운영된 대표 거리형 문화축제로, 입주 예술가들의 공간을 시민이 직접 참여·체험하는 예술마켓

출처: 꿈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http://www.dreamroad.kr/www/>).

본 사업은 우선 꿈틀로 거리의 물리적 재생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먼저 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거리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 2018년 현대제철 자원봉사 단과의 협업 하에 꿈틀로 내 상가들의 간판을 제작하는 ‘철수와 목수’ 프로젝트를 진행시켰고, 2020년에는 꿈틀로 작가들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꿈틀로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 ‘의자심기’를 진행시켰다. 2020년 3월부터는 포스코 제강설비부 봉사단의 협력 하에 꿈틀로 내 생활시설을 정비·개선하는 ‘꿈틀로, 결테로’ 프로그램 또한 진행시켰다. 꿈틀로 입주

작가들의 창작력과 자생력 강화 또한 본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는데, 이에 작가들은 2021년 꿈틀로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꿈틀로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대안공간 ‘스페이스298’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를 선보였다. 초기부터 꿈틀로의 주요 목표로 강조되었던 ‘시민참여’ 개념 또한 구현되었다. 포항시는 시민-전문가-예술가 공동기획단인 ‘ONETED’를 구성, 이를 통해 시민이 직접 꿈틀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에 참여토록 하거나, 또는 ‘298놀장’이라는 아트마켓의 운영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예술활동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참여 문화활동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적 지원의 한계, 예술적 창작력을 자극하는 환경 조성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2) 2019년 이후 법정문화도시

(1) 포항과 문화도시

포항시는 지역 철강산업의 장기적 침체, 2017년 지진 피해 등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법정문화도시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비도시사업을 거쳐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포항은 ‘시민의 문화적 성장도모’, ‘문화를 통한 삶의 전환’, ‘문화의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문화적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4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해 1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표 2> 참조).

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문화적 성장도모’ 부문에서는 시민을 문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신스틸러’ 프로그램과 시민의 정책 제안을 실천하는 ‘시민문화정책단’ 등이 운영되었다. ‘문화를 통한 삶의 전환’ 부문에서는 일상적 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삼세판’,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적 다양성 확보’ 부문에서는 예술인의 다양한 교류와 창작력의 고취를 목표로 삼는 ‘국내외 예술교류’, 시민이 직접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시민.net’ 프로그램 등이 기획되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적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Grand

7) 포항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되었다.

Marionette 아시아거점 구축' 사업, 포항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포항형 예술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되었다.

<표 2> 법정문화도시 포함 추진 사업

핵심 가치	사업 목표	추진 단위 사업
순환	시민의 문화적 성장도모	권역별 시민주도 문화사업
		협업워킹그룹 양성 및 조직 '신스틸러'
		시민문화정책단
		문화도시 시민포럼
재생	문화를 통한 삶의 전환	포포낙락 페스티벌
		문화거점 조성 및 활성화 '삼세판'
		문화재생활동가 양성&재난안전맵 구축
		문화안전망 구축
		FROM 1115
해양	문화의 다양성 확보	수협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 운영
		국내외 예술교류
		문화시민.net
창조	지속가능한 문화적 성장동력 마련	포항문화재단
		문화자산화
		인문-스틸-해양 콘텐츠 미래자산화
		Grand Marionette 아시아거점 구축
		포항형 예술지원 시스템 구축
		순환형 문화공영개발 청년창업특구 조성

출처: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culturecity.phcf.or.kr/>).

한편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유휴 산업공간을 리모델링한 '동빈문화창고 1969'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삼세판'과 함께 포항 문화도시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2) 포항의 대표적 법정문화도시사업 프로그램

① '동빈문화창고 1969'

포항시 북구 동빈로에 위치한 '동빈문화창고 1969'는 50년 역사를 지닌 구수협냉동창고를 문화적으로 재생시킨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는 1969년에 건립된 건물로, 당시 이곳은

수협 수산물 저장고와 제빙냉동시설로 사용되었다. 1997년 포항수협이 이전하면서 이곳에는 제빙냉동시설만 남아 운영되었는데, 2008년 이마저 운영이 중단되며 본 건물은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남게 된다. 이후 2017년 포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되고, 2019년 포항시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사들이게 된다. 그리고 2021년 시작된 '복합 문화예술체험 거점 조성공사'를 거쳐 이 장소는 문화적 공간으로 변신한다. 2023년 준공 이후, 포항문화재단은 본 공간에서 문화도시 사업 프로그램들을 기획, 실행하기 시작한다(포항문화재단, 2025).

<그림 1> '동빈문화창고1969' 현장사진



출처: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연구자 직접 촬영.

동빈문화창고 1969⁸⁾는 전시실, 도서실 등을 갖추게 되면서 지역의 부족한 문화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늘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예술 전시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 마련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며 지역의 창작 환경 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미디어 아트 장르의 기획 전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포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장르의 전시가 운영되면서 시민들은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이외에 지역 축제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본 공간은 활발한 문화적 교류의 공간으로 역할 하게 되는데, 실제로 2024년에는 지역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연계프로그램들을 실행하였고, 2025년에는 스틸아트페스티벌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과의 다양하고 활발한 상호 관계 속에서 동빈문화창고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거점공간으로

8) '동빈문화창고1969'는 2024년에 새롭게 부여된 명칭으로 이는 공간의 산업적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자리 잡게 된다.

② ‘삼세판’ 문화거점 사업

2017년 지진 이후 포항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도시 기반건설 만큼이나,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안에서 일상적 안정감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포항은 소규모 생활권을 기준으로 ‘15분 문화생활권’을 구축하는 시민참여형 문화거점 조성사업 ‘삼세판’을 추진한다. ‘삼세판’은 ‘삼삼오오 모여 세상을 바꾸는 문화판’의 약칭으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생활권역 안에서 소규모 문화 공간, 즉 문화적 거점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다⁹⁾. 본 사업을 통해 동네의 카페, 마을회관, 책방, 빈 점포 등 다양한 일상적 공간들이 동네의 문화적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바느질, 독서, 목공, 요리 등의 작은 취미 활동부터 베틀시장, 마을 축제에 이르는 작은 행사까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였다(포항문화재단, 2023).

포항문화재단의 한 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삼세판에 참여한 시민들은 초기에는 새로운 방식에 다소 낯설어했으나 관심사와 취미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활동에서 출발해, 점차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등, 점점 마을의 자원과 이슈를 발굴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일부 그룹은 지역사회의 더 큰 문제 또한 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그룹은 그 수가 전체 그룹 수의 약 1/3 정도에 미쳤지만 다른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델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며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생력을 스스로 키워 나간 것이다. 삼세판의 공간은 2020년 5개 권역에서의 15개 문화거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그 거점의 수가 누적 55개로 증가하며 확장되었다. 거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는 연간 총 830여 개에 이르며, 약 1만 명의 시민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포항문화재단, 2025).

9) 포항문화재단은 도시, 공업, 농촌, 산촌, 어촌 권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민커뮤니티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3년간의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III. 유럽문화도시 틀을 빌려온 포항의 도시재생?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은 유럽문화수도 사례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왔다. 물론 이는 유럽이 선진적인 문화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서구에 대한 선망과 동경이 작용해 온 면도 크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과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 등의 사회적 조건이 매우 다르고, 따라서 한국의 도시발전 과정 또한 그들의 도시발전 과정과 매우 다르다. 그렇기에 해외의 도시정책 모델을 한국의 도시재생에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즉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도시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도시재생 정책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 같은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리하여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낸 선진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비교 분석적 과정 속에서 한국 문화도시 정책의 어떤 점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 과정은 동시에 우리에게 유럽의 정책과 한국의 도시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즉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이 어떠한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 III장에서는 포항과 유럽 도시 사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포항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도출해냄과 동시에, 포항이라는 산업도시가 가진 특징, 즉 포항만의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이 가진 특징 또한 읽어내어 한국적 문화도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 한다.

1. 유럽문화수도 ‘릴’과 ‘리버풀’

1) 낙후된 산업도시에서 성공한 문화예술도시로

프랑스의 북부에 위치한 쇠퇴한 산업도시였던 릴은 2004년 유럽문화수도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릴 2004’라는 제목 하에 진행된 릴의 유럽문화수도는 릴과 릴 주변지역의 도심 재정비 및 물리적 재건, 그리고 도시 이미지의 ‘변신(metamorphosis)’이라는 양적, 질적의 두 가지 변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릴 2004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볼거리를 폭넓게 제공함과 동시에 ‘메종 폴리(Maison folie)¹⁰⁾와 같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들

의 건조를 통해 도시 경관을 ‘변신’시켰다. 또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적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며 시민의 문화적 체험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릴의 ‘변신’의 노력은 지역경제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역민 삶의 가치 창조라는 지역사회의 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릴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릴 2004가 보여준 지역의 문화적 열기와 주민들의 역동성을 유지시켜 나가고자 하였고, 그리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2년~3년 주기로 대규모의 혁신적인 문화 예술 행사인 ‘릴 3000’ 프로젝트를 기획, 개최해 오고 있다(김설아 외, 2017)¹¹⁾.

영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무역업이 성행했던 리버풀은 1960년대 들어 시작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영국 조선업의 쇠락과 함께 급격한 침체를 맞게 된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기 침체, 사회적 불평등, 인종 간 갈등 심화 등과 같은 다각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암울한 시기를 거친다. 그러나 1997년, 리버풀 시 의회의 정치적 방향성과 영국 정부의 정치적 기조가 변하고 이에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 조성 장려라는 정치적 담론이 지역사회 내에 형성되면서 리버풀에 변화가 시작된다. 리버풀은 글래스고나 맨체스터의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이 지역경제와 도시환경을 발전시킨다는 인식을 얻게 되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뛰어든게 된다. 그리고 2003년에 2008년의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다. 유럽문화수도 ‘리버풀 08’를 준비하며 리버풀은 ‘The world in one city(전 세계를 리버풀에)’라는 슬로건 하에 다문화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시민주의와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도시 이미지를 제시한다(김새미, 2016). 이렇게 ‘문화다양성’ 구현과 ‘문화 간 이해’의 개념을 강조하던 ‘리버풀 08’은 사실 유럽 국가 간 교류를 증진 시킨다는 대외적인 목표 외에, 지역의 심각한 인종 간 갈등 문제를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표 또한 지니고 있었다. 유럽문화수도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된 리버풀은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문화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 오고 있다.

10) 메종 폴리(Maison Folie)는 폐공간이나 유적지 등을 개보수하여 예술 교류의 장으로 재활용한 사례이다. 특정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닌 상황에 따라 예술가들의 작업실, 전시실, 공연장, 카페 등으로 변형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며, 릴 전역에 걸쳐 총 12개의 메종 폴리가 조성되었다(김설아 외, 2017).

11) 릴 3000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 개최되었다.

2) 성공요인

옛 산업도시인 릴과 리버풀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성공 과정을 비교 분석했을 때, 이들의 성공은 네 가지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시 정부의 강한 리더십이다. 릴의 경우, 2001년 시장으로 취임한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의 영향력이 릴 2004의 성공에 크게 작용했음을 언급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인정받아 왔던 오브리는 시장직에 오른 후 릴 2004의 운영위원회인 '그랑 릴 위원회(Comité Grand Lille)'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민간 자원 유치와 파트너십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실질적으로 오브리의 정치적·사회적 활약은 민간 부문에서의 충분한 재정 확보에 큰 공헌을 했다(평가된다(김설아 외, 2017)). 리버풀에서는 1998년 자유민주당의 시의회 집권 이후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이 본격화된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마이크 스토리(Mike Storey)와 수석행정관 데이비드 헨쇼(David Henshaw)는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개발회사인 '리버풀 비전(Liverpool Vision)', 유럽문화수도 선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리버풀문화회사(Liverpool Culture Company)'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장해 가며 도시재건에 대해 대비를 해 나갔다. 이처럼 릴과 리버풀은 시 정부의 강한 결정권에 기대어 일관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둘째, 독립적인 도시재생 실행 조직의 운영이다. 릴의 경우 1993년 출범한 지역 엘리트 중심의 협의체인 '그랑 릴 위원회'가 유럽문화수도 행사에 대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 위원회는 릴 2004 행사 당시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행사 관련 정책 및 행정적 의견 제시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고 유럽문화수도 준비를 위한 자금조달과 지역사회 연결 등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릴 2004 종료 후, 그랑 릴 위원회는 '릴 3000협회'란 독립 조직으로 법제화되어 릴 시로부터 공식적인 거리를 두게 되었고, 현재 릴 3000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재생 과정에 있어 자원 조달, 기관 협력, 지역 연계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김한별&김설아, 2024). 리버풀의 경우 2000년에 리버풀문화회사(Liverpool Culture Company, 이하 LCC)가 시의회에 의해 설립되어 유럽문화수도 준비와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LCC는 시의회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의회를 대변하는 역할도 했다(김새미, 2016). LCC는 도시, 지역, 국가,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공공 및 민간 조직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서 행사를 기획, 운영하거나 참여 주체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컬처 리버풀(Culture Liverpool)'이라는 명칭 하에 시의회는 문화 담당기관으로 전환된 본 기관은 현재까지 시민참여 위주의 문화이벤트 기획 및 운영을 이끌어 오고 있다.

셋째, 두 도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단단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릴의 경우 그랑 릴 위원회의 구성원 다수가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이들의 투자와 후원 하에 재생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2003년 제정된 프랑스의 「메세나, 단체, 재단에 관한 법률」은 기업 매출의 0.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최대 6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를 세우면서 민간부문의 후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실질적으로 릴 2004에서는 기업후원이 18%를, 릴 3000에 들어서는 평균 36%를 차지했다(김설아 외, 2017). 리버풀은 LCC를 중심으로 시 정부, 중앙정부, 민간 부문 간의 자금 조달 전략을 세웠는데, 유럽문화수도 행사를 위해 민간 후원을 위한 공식 스폰서십 제도인 'Liverpool 08'을 운영하거나 상공회의소와의 협력 프로그램 '08 Business Connect' 등을 운영하며 재원을 확보했다. 리버풀은 2004년부터 6년간 총 1억 2,988만 파운드의 행사 수익을 올렸는데 이 중 약 2,230만 파운드가 기업 후원으로 17%의 후원 참여율을 기록했다(Garcia et al., 2010).

넷째, 시민 참여 시스템의 구축이다. 릴은 릴 2004 동안 문화접근성이 낮은 12개의 중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12개의 미술 전시회 시리즈를 운영하거나('문화의 종루' 프로그램), 방치된 옛 직물공장이나 농장을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교류하는 문화거점의 공간으로 개조하는 등('12개의 메종 폴리' 프로그램), 시민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통해 행사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약 40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외교관(ambassadeur)'이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하고 행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기도 했다(김설아 외, 2017). 리버풀 08은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재생의 필요성과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술가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미혼모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영화로 제작하도록 돕거나, 또는 학교의 청소년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지역에 창의적 디자인을 입혀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도 했다('Generation 21' 프로그램)(김명지, 2011). 또한 릴 2004와 같이 리버풀 08 또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08Volunteers'을 운영, 약 800명의 시민 자원봉사자가 행사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2. 유럽문화수도과 구별되는 포항의 도시재생

1) 유럽문화수도 vs 포항

앞서 언급한 유럽문화도시들의 성공요인에 기대어 포항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포항 문화행정 리더십의 약화

유럽의 산업도시가 시장이나 시의회 의 일관된 방향성을 지닌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해 온 것에 비해 포항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난 관의 리더십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포항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했던 포항문화재단은, 여타의 지역문화재단처럼, 문화지원업무, 공공적 문화서비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문화 거버넌스 기구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를 담당한다면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행정 운영 체계 관리 및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민-관 협치 구조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많은 권한이 재단 대표에게 양도된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시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리더십은 시장이나 자치단체보다 재단 대표에게서 발휘된다 하겠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이 재단 대표의 개인적 역량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2019년 포항시는 '꿈틀로'의 모델이 된 부산 '또가또가'의 기획자이자 중앙과 지방에서 다년간 문화정책 실행 경험을 쌓아온 차재근을 포항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그는 2년의 재임 기간 동안 포항의 법정문화도시로의 선정과 이를 위한 충분한 국비 확보, 기부금 유치 등의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고, 2020년 법정문화도시 평가에서는 포항에게 최우수 문화도시라는 타이틀까지 선사했다. 하지만 2021년 초 그의 퇴임 후, 재단의 대표 이사 자리는 2023년 말까지 약 3년간 공석으로 유지되었고, 이러한 리더십의 부재는 포항의 문화행정에 많은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시행정의 사무국과 재단 실무자·지역 예술인들 사이의 불협화음, 이로 인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운영 능력의 저하, 타 기관과의 협업에의 어려움, 사업 예산 확보와 예산 운용 구체화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것이다. 2024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긴 했으나 그의 문화예술행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위와 같은 포항문화재단의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재단 내의 리더십 부재로만

설명하기엔 지역문화재단은 민-관 협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그 이사회 구성이나 조직도에서 매우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즉, 재단 대표의 개인적 역량이 지역문화발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진정한 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이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시행정의 리더십, 즉 문화재단과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행하며 동시에 이를 관리·감독해 줄 수 있는 자치단체의 리더십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재단과 시 정부, 두 주체의 조화된 협치의 리더십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릴에서의 릴 3000 협회와 시정부의 관계, 리버풀에서의 시의회와 LCC의 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② 자원 종속성에 의한 문화재단의 낮은 자율성

포항의 문화적 도시재생 실행조직인 포항문화재단은 포항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책 개발, 축제 기획, 문화시설 운영 등 포항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운영 재원이 대부분 포항시의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재단의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문화 프로그램의 실행은 재단의 재량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 문화재단이 국가의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 기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문화행정의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던 2021년까지 이러한 사안들은 문제화되지 않았으나¹²⁾, 이후 재단의 대표 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고 이로 인해 재단 내 경영의 효율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정당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시 정부의 재단에 대한 예산 집행 감시 업무가 강화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창작력, 대중성, 교육성, 행정과 경영의 효율성, 이 모든 면을 다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단순히 관료주의적인 행정 기준에만 맞춰 업무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 업무 진행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이해한 융통성 있고 유연한 업무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릴과 리버풀과 같은 유럽문화도시들이 문화예술사업 담당 기관을 시정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 이유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와 같이 재단이 시정의 산하에 설치되어 재정에 대한 자립도를 높일 수 없고 그리하여 실무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 리버풀의 LCC 경우처럼 민-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여 관이 민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재단의 낮은 재정 자립도에 대한 현실적인

12) 2020년 포항문화재단의 구룡포를 테마로 한 '피어라 미항' 프로젝트가 문체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되어 총 120억 원의 공공 지원금을 확보하였다(이영철, 2024).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③ 시민 참여 시스템의 구축

릴과 리버풀의 유럽문화수도 사업에서처럼 포항 또한 문화도시 사업에 있어 시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포항에서는 법정문화도시사업 이전까지 도시재생 및 문화 관련 사업이 업-다운 방식의 행정 주도로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후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면서 시민 사회의 분위기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포항시는 시민문화정책단, 시민모니터링단 등 공식적인 시민 참여 조직을 구성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 설정과 실행 과정에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사업 기획과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 참여 방식이 확대되었다(‘삼세판’ 사업). 또한 시민들은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의 핵심 주체가 되기도 했다(‘문화안전망’ 사업). 이와 같은 다양한 시민 참여 시스템의 구축은 포항의 문화적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 포항 도시재생 정책의 특징

유럽 산업도시 성공 모델과의 비교는 포항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어떠한 면이 부족한지를 부각시킨다. 포항에게 단단하면서도 원활한 소통의 민-관 협치 구조를 세심히 구축해 가야 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러한 비교 분석은 포항이 유럽의 산업도시들과 어떠한 면에서 차별점을 가지는지 또한 보여준다. 산업도시로서의 성장이 완전히 멈춘, 쇠퇴기의 상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시작한 릴이나 리버풀과 달리, 포항은 철강도시로서의 산업력을 유지한 채 문화적 재생을 시작한 것이다. 과거 1960-70년대 국가의 압축적 경제성장정책은 포항이 강력한 철강도시로 성장하고 그 역량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1) 압축경제성장 속에서 형성된 철강도시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도의 강한 산업화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6·25전쟁 이후 산업 및 사회적 기반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국가 발전의 핵심목표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장기간 추진되는 가운데 포항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혜택을 오롯이 받게 된다. 제철공장이 권위주의적 정부의 강력한 산업 발전 계획 아래 포항에 건립되어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되면서 포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다.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와 포항제철 회장 박태준의 긴밀한 사적 관계는 국가와 포항제철 간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핵심 채널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포항제철은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철강공업육성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기간의 정책적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류상영, 2011; 서병철, 2019).

1980년대의 전두환 정권 하에서 포항제철을 포함한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된다. 전두환 정권은 1970년대에 시작된 세계경제의 장기 불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내 경제 안정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중화학공업 중심 성장 전략이 약화된 것이다(송성수, 2000).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 포항제철은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지위를 유지한 채 오히려 산업 확장이 이어갔다. 포항제철 회장이던 박태준은 1981년 국회 재무위원장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전두환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를 통해 제2제철소 입지 선정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비록 박정희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정권과의 소통이 간접적이고 정치권으로부터의 자율성도 축소되었지만, 포항제철은 여전히 기업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정부가 1984년부터 정부 주도적 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경제 운영을 지향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포항제철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던 「철강공업육성법」을 폐지시키기도 했지만, 이러한 철강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축소는 사실 세계 경제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경제정책 전략이었을 뿐, 포항제철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 무형의 지원은 유지되었다(박병영, 2003; 이연호 외, 2004)¹³⁾.

13) 이 시기 포항제철은 재정 자립도 강화, 경영 다각화, 해외 시장 개척, 기술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이렇게 약 30년간 지속된 포항제철과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의 친밀한 관계가 포항 산업 도시의 개발과 발전으로 이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철강 관련 산업군이 지역에 형성되면서 포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한다. 이 시기 포항의 인구 성장률은 연평균 9.8%로, 1960년대 후반까지도 7만 명에 못 미치던 인구수는 1970년 79,451명, 1985년 261,256명으로 급증했고 1988년에는 약 30만 명에 이르게 되면서 포항은 경상북도 최대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박삼옥, 1992).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유입은 사택단지 조성에 의한 신흥 주거지와 시장 형성 등 상권을 형성시키며 지역의 경제 규모 또한 확대시켰다.

한편, 1980년대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변화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운데 포항제철은 선진국 철강산업의 쇠퇴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술지원 축소를 목격하며 독자적인 R&D 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김병연 외, 2011). 이에 포철은 1986년 포항에 연구 중심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고, 1987년, 1988년 잇달아 산업과학 기술연구원(RIST)과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작되는데, 이에 2000년부터 포항에 포항테크노파크 설립을 시작으로 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업지원기관들이 집적되기 시작한다(김도경, 2023). 포항은 이렇듯 산업도시 외에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 도시로서의 기능 또한 갖추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포항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적 인프라의 축적은 포항을 철강산업에만 집중한 공업도시가 아닌, 다양한 역량을 지닌 ‘가능성’의 도시로 성장하게 한다. 실제로 포항은 이렇게 지역이 품고 있는 산업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의 역량을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다.

(2) 지역의 산업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포항은 문화도시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 기업 자율성을 확보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에는 조강 생산 기준 세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포항제철은 2002년 완전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전환된다.

문화예술과 결합하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리하여 포스코 등의 철강 산업기관, 포스텍, 한동대 등의 교육기관, 로봇융합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등과 같은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 자원을 대증성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여 ‘그랜드마리오네트 아시아거점 구축’ 사업, 그리고 그 후속 단계인 ‘아트&테크 문화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에 시작된 ‘그랜드마리오네트 아시아거점 구축’ 사업은 로봇 기술과 지역의 스토리텔링 전략의 융합을 시도한 사업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테크놀로지의 미적 구현을 대중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로봇 제작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진행되거나, 포항문화재단과 포스텍 IT융합공학과 박주홍 교수가 함께 만든 ‘ArTech LAB’를 통해 ‘예술 기술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기술연구 및 시민 대상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22년부터 ‘예술 기술 융복합 추진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로봇 제작이 본격화 되었는데, 이미 대형 로봇 제작과 이를 활용한 행사 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프랑스 낭트의 아티스트 2인이 협력적 관계로 본 팀에 합류한다. 이후 대형 로봇이라는 기술을 통한 고난도의 문화콘텐츠 제작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일만 Art&Tech LAB’¹⁴⁾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포항 구룡포 전설 속 캐릭터인 용의 프로토타입 <Dragon-bot> 제작 실험이 이루어진다. 이후 2023년에는 포항의 현대사를 이끈 산업 근로자를 상징하는 융접공 모티브의 <포항>가 만들어졌고, 2024년에는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기술이 장착된 휴먼노이드 형태의

<그림 2> ‘Grand Marionette 아시아거점 구축’ 사업 결과물



포항

출처: 포항문화재단



이아피(iahfy)

14) 기술 및 정책 자문으로 포항시(문화예술과, 컨벤션관광산업과, 해양항만과), 경상북도(문화산업과, 환동해지역본부), 포스텍(산학협력단, 메이커스페이스), 한동대(산학협력단), 프랑스 기관(이아츠업 대학, 라머신 등), 포스코, 동성조선소, 기타 지역에 있는 자재부문 업체 등 다양한 지역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술협력체계를 이루어냈다.

<이아피(iahfy)>가 제작되며 사업이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 본 사업은 시민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도록 하거나 또는 로봇이 거리 퍼포먼스와 공연에 참여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문화콘텐츠를 실질적으로 구현시켰다(포항문화재단, 2023).

2023년, 도시재생 사업에 ‘문화클러스터’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랜드마리오네트 아시 아거점 구축’ 사업은 동빈내항과 송도 일대에 예술·기술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실험·창작·산업이 어우러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영일만 Art&Tech 문화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장된다. 법정문화도시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4년, 포항문화재단은 ‘포항융합예술주간’을 개최하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작된 대형 로봇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아트&테크 문화클러스터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기술-예술의 융합이 포항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역설하였다(포항문화재단, 2025). 현재 포항문화재단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포항시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역동성 있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다. 포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기, 그로 인한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예술 융합기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지역 사회의 구조적 장점 및 특성을 살린 포항의 도시재생 시도는 한국의 타 산업도시뿐만 아니라 포항과 유사한 사회적 조건을 지닌 해외의 도시들에게도 좋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포항의 노력과 성장이 지속된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IV. 포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소멸과 산업 쇠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산업도시 포항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모색해 온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 쇠퇴 이후 문화와 예술을 도시재생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해 온 유럽의 산업도시인 릴과 리버풀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포항의 문화도시 발전 과정과 비교하면서 포항의 도시발전 정책이 어떠한 면에서 부족하고 어떠한 면에서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포항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노력을 살펴본 결과,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면도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포항의 문화

적 도시 만들기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행정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다. 포항의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행정에 대한 리더십이 약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문화행정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시정부와 실무를 담당하는 문화재단 간에 원활하면서도 긴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부작용이다. 재단이 민-관 협치의 기구인 만큼, 문화행정에 있어서의 리더십 또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협력관계 속에서 구축되고 발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포항문화재단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재단의 문화예술 행정 실무에서의 자율성이 제한됨을 문제로 들 수 있다. 3년간 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비어져 있음으로 인해 재단의 경영과 예산 운용에 대한 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시정의 관리체계 또한 재단의 자율적인 실무 실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포항의 문화적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사이에 깊은 상호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재단이 시정의 산하기관인 만큼 관이 민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이 품고 있는 산업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의 역량을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로봇기술과 문화예술적 사고의 융합을 지향하는 포항의 창의적 문화재생 전략은 ‘Art&Tech 문화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문화산업 생태계의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잠재력을 보여주었던 포항은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영일만 Art&Tech 문화클러스터’는 참여 주체들 간에 협력관계만이 형성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문화도시사업 종료 이후에는 자원 부족과 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로봇 제작 및 실험활동도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포항문화재단은 2025년 추진 과제로 ‘P-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성장 견인’을 제시하며 관련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전략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문화 간 협력을 전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구축, 협력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공식적인 제도 설계, 그리고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포항이 유럽 산업도시의 문화적 도시재생 모델을 따르면서도

포항이라는 도시가 가진 특징을 살린 자신만의 도시재생 모델 또한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포항의 사례는, 쇠퇴한 산업도시들이 여타의 도시발전 성공 모델을 자신의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발전시킬 경우, 또 다른 창의적인 재생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수많은 산업도시들이 그들만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도경.(2023). 포항 R&BD기관의 집적과 지역에 대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58(5), 548-561.
- 김명지.(2011). 영국의 문화예술정책 - 2008 유럽문화수도 '리버풀'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문화예술학논집* 4, 1-28.
- 김병연&최상오.(2011). 포스코와 한국경제. *경영사연구(경영사학)* 58, 5-49.
- 김상화.(2010). [도시와 길](15)경북 포항시 중앙로. *서울신문*. (2025.11.15.).
- 김새미.(2016). 유럽 문화도시 환경조성에서 나타난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 연구: 2008 리버풀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 사례. *다문화사회연구* 9.1. 127-164.
- 김설아&이병민.(2017). 프랑스 릴(Lille)의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과정에 대한 고찰: 릴 2004(Lille 2004)와 릴 3000(Lille 3000)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13(2), 145-176.
- 김설아.(2024).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검토: 'K-콘텐츠'와 '지역개발'이라는 발전들, 그리고 문화예술. *한국사회* 25(2), 79-112.
- 김재원.(2026). [[기획]포항 내수부진 원인과 대책(2)] 포항 전체 유출인구 중 90%가 청년인구... 고령화 가속화 초래. *영남경제신문*. (2026.01.08.).
- 김주일&임성빈.(2021).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변 용도변화과정 분석 - 포항 꿈틀로 문화예술창작 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2(5), 161-172.
- 김한별&김설아.(2024). 문화예술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릴 3000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7(2), 133-166.
- 류상영.(2011). 박정희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단철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일본연구* 33, 255-285.
-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박광무.(2013). *한국문화정책론*. 김영사.
- 박병식, 강태호&하현국.(1991). 지방 중소도시 개발정책에 관한 계량적인 분석연구 (관광권, 경제권, 생활권). *한국행정논집* 3, 61-85.
- 박병영.(2003). 1980년대 한국 개발국가의 변화와 지속: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5(1), 31-61.
- 박삼욱.(1992). 중소도시와 주력산업 육성 제철산업도시 포항의 발전과 정책과제. *도시문제* 27(281), 45-57.
- 배용일.(1997). 역사와 도시탐색-포항의 역사. *건축사* 1997.12: 63-66.
- 서병철.(2019). 기업도시와 도시레짐. *지역사회학*, 20(3), 223-262.
- 서우석&조광호.(2019).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유럽문화수도와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문화경제연구* 22(1), 129-160.
- 서준교.(2014). 도시쇠퇴(urban decline)와 수축(shrinkage)의 원인과 대응전략 연구 -리버풀(Liverpool)과 라이프치히(Leipzig)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97-115.
- 손석호, 오종명&박용기.(2019). 자영업 '폐업 스나미' 지역 경제 뿌리 휘청. *경북일보*. (2025.07.12.).
- 손유진.(2025). 늪과 병든 포항철강산단 "느냐 사느냐"..정부에 달렸다. *철강금속신문*. (2025.05.28).
- 송성수.(2000). 포항제철기술능력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연호, 정석규&임유진.(2004). 전두환정부의 산업합리화와 김대중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비교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14(1), 25-54.
- 이영철.(2024). 포항문화재단 '피어라 미항, 구룡포' 축제...“예산만 쏟아붓고 의혹은 커지고”. *경북신문*. (2026.01.18.).
- 장세훈.(2010). 기업도시 포항의 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학관계. *지역사회학* 11(2), 165-197.
- _____.(2019). 기업도시의 위기와 대응: 철강도시 포항의 도시 재할 실험. *공간과 사회* 29(4), 195-241.
- 최성원.(2013). 일제강점기 포항의 도시화 과정. *경주사학* 38, 111-144.
- 포항문화재단.(2023). *도시담다*.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 _____.(2025). *도시 펼쳐다*.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2010). *포항시사* 1권. 포항시.
- Garcia, B., Melville, R. & Cox, T.(2010). *Creating an impact: Liverpool's experience as European Capital of Culture*. Liverpool: Impacts 08.

Manuscript: January 25, 2026; Review completed: February 04,
2026; Accepted: February 05, 2026